

# 전설의 형성과 의미, 懶翁傳說의 경우

趙 東 一\*

## 1.

懶翁(1320, 고려 충숙왕 7년~1376, 고려 우왕 6년)은 고려말의 名僧이다. 禪宗이 크게 일어나도록 했으며, '僧元歌' 등 가사 작사로도 알려져 있다. 그런데 나옹은 전설의 주인공으로서 또한 주목되는 바이다. 學宏이 쓴 '懶翁和尚行狀'에도 이미 전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서두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스승의 휘는 慧勳이고, 호는 나옹이고, 옛 이름은 元慧이고, 거처하는 방은 江月軒이라 했다. 속성은 牙氏이다. 寧海府 사람이다. 아버지는 휘가 瑞具인데, 벼슬이 贈官擢命에 이르렀다. 어머니는 鄭氏이다. 정씨가 꿈에 금빛 새매가 날아와 머리를 쫓다가 떨어뜨린 알이 품 안에 드는 것을 보고서 아이를 배어, 延祐 庚申(1320년) 정월 15일에 낳았다. 골상아 예사 아이와 달랐다. 자라자 정신이 뛰어났다. 곧 출가하고자 했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나이가 열두 살에 이르렀을 때, 이웃 동무가 죽는 것을 보고 부모에게 물었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모두 말했다. "모른다."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마침내 功德山 妙寂菴 了然禪師에게로 갔다"

이러한 서술은 나옹의 이름, 호, 속칭, 출신 지역, 부모 등에 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그런데 어머니 정씨가 꿈에 새매가 떨어뜨린 알이 품에 드는 것을 보고 나옹을 잉태했다고 하는 대목은 실제로 있었던 태몽을 그대로 전한다 하더라도 사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전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금빛 새매가 날아와 머리를 쫓았다는 것은 남편과의 접촉이 상징적인 꿈으로 전환된 결과라고 해도 좋다. 품에 든 알은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열두

\* 嶺南大 教授(國文學專攻)

1) 韓國高僧集 高麗時代 3(서울: 景印文化社, 1974)에서 필자 번역.

살에 이르렀을 때 동무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물었다는 것도 사실의 전달만은 아니다. 앞에서 생명의 형성을 제시했고, 여기서 죽음의 두려움을 제시했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고민 때문에 나옹은 중이 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동무가 죽은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설적인 사건은 그 자체로서의 타당성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마련이다. 의미가 타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자체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전설적 전환이 일어난다. 여기서 전설적 사건이니 전설적 전환이니 하는 것은 전설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서사문학 창작 또는 문학 창작 일반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도 크게 보아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자료를 다루는 이유는 세분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설은 사실과 밀접한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대응관계가 쉽사리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전설을 통해서 서사문학 창작의 비밀을 엿보는 작업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 본다.

사실이 전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와전이 중요한 몫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나옹에 관한 전설 자료를 두루 살펴 보면 사실의 와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朝鮮名臣錄’이라는 책은 사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나옹의 아버지가 “方瑞具”라고 했으니<sup>2)</sup> 성이 方氏로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 전설 자료 중에는 나옹의 성이 張氏라고 한 것이 흔히 발견되고<sup>3)</sup>, 어머니의 성은 朴氏라고 하기도 한다<sup>4)</sup>. 이렇게 사실이 와전되다가 보면 전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추론이다. 그러나 나옹의 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설에서는 무의미하고, 전설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 없다. 성은 무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으며, 나옹의 성이 牙氏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자료라고 해서 사실에 충실한 것만도 아니다. 완전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고 해도, 전설에서 무의미한 와전이 있고, 전설에서 의미가 있는 와

2) 李章勳, 朝鮮名臣錄 2(서울: 儒林建約所, 1925) 附錄 名釋

3) 李在崑, “慶北 盈德地方의 傳說, 民謠, 巫歌”, 國文學論集 7·8(서울: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p. 247, 柳增善, 嶺南의 傳說(大邱: 螢雪出版社, 1971) p. 241 등

4) 東海岸地區學術調查報告書 1970~1976(서울: 成均館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6) p. 123 등

전이 있다. 이 중에서 전설에서 의미가 있는 와전은 단순한 와전이 아니고 의도적인 와전이며 전설적 전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설 자료에서 나옹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가 살펴 보면, 전설적 전환의 적극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단서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상주 사람으로 이 고을 여자를 맞아들여 가사산 밑에서 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하여 관청에 바칠 세금을 내지 못하여...<sup>5)</sup>

남편인 장씨가 세리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도망쳐 버리고...<sup>6)</sup>

이곳 가산(당시 불미풀)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여말 세상이 혼란할 때 세계가 각박하고 세리들의 횡포가 심하여 기일 안에 정해진 세금을 내지 못하자, 농부는 집이나 부인 정색만 두고 도망을 갔다<sup>7)</sup>.

나옹의 부모가 가난해 가주고 세금을 바치지 못해서<sup>8)</sup>.

아주 관속도 하등 관속을 지내는데. 말하자면 사령, 관로 같은 것을 지내는데. 나옹의 아버지가. 그래서 관속을 지낸 어른이 빛이 많이 졌어, 관가에 빛이 많아지고, 또 그 어른이 빛이 지자하이 자기는 쫓게뎡기는 사실이고, 쫓게 나와<sup>9)</sup>

나옹의 아버지는 원래 賸官鬻습이었다. 고려의 직제에서 선관서령은 종 7품의 관원이다. 종 7품의 관원을 아주 가난한 사람, 가난한 농부, 빚지고 도망친 하등 관속 등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나옹이 세상에 태어난 조건을 사실과는 아주 다르게 설정했다. 행장에서의 나옹은 별다른 고생 없이 자라나며 동무의 죽음을 보고서야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전설 자료에서의 나옹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다. 부모가 가난해서 세금을 바치지 못해서, 관원이 와서 어머니를 잡아가는 도중에 나옹이 태어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설의 공통적인 내용이다. 문헌 자료에 이미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 주(3)의 柳壇善 책 p. 241.

6) 주(3)의 李在崑 자료 p. 247.

7) 주(4)의 책 p. 117.

8) 1977년 8월 12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 1동에서 박노환(남, 60세)가 필자에게 말한 자료에서.

9) 1977년 8월 13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 4동에서 차채걸(남, 68세)가 필자에게 말한 자료에서.

까치소. 군 서쪽 仁良에 있다. 고려의 중 張懶翁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낳아  
 왔을 때, 가난해서 세금을 바치지 못해 官督에게 잡혔다. 못 위에 왔을 때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를 버려두고 잡혀갔다. 관에서 가엾게 여겨 돌려보냈다. 그 자리에  
 오니 까막까치가 태어난 아이를 날개로 덮고 있었으므로, 안고 돌아왔다. 자라서  
 도를 닦아 神聖이 되었다. 그래서(까치소라고) 이름지었다<sup>10)</sup>.

행장과 이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도 생명과  
 죽음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그 방향이 아주 달라졌다. 가난해서 세금도 바  
 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판에 잉태되었고, 官督에서 잡혀가는 위기에  
 몰렸을 때 태어나고 버림받았으니, 고난과 죽음은 나옹에게 필수적이고 회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무의 죽음을 목격한다든가 하는 사건은 설정  
 할 필요가 없다.

행장에서의 나옹은 넉넉한 집안에서 생활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살아  
 갔던 것처럼 보인다. 동무의 죽음을 보고 고민한 것은 순전히 정신적인 경  
 현이다. 실제의 나옹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전설에서의 나옹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다. 까막까치의 보호  
 와 같은 기적을 계속 기대할 수 없다면,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다. 행장에서의 나옹은 죽음에 대한 정신적 고민 때문에 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전설에서의 나옹은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그렇다면 전설은 사실의 왜곡일 수 없다. 전설적 전환이 철저하게 이루어  
 진 전설은 그것대로의 명확한 구조와 일관된 의의를 가진 창작이다. 나옹이  
 가난한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설에서 필수적인 설정이다.  
 사실에 매여서는 전설이 전설답게 이루어질 수 없다. 나옹 전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난한 백성의 고난이고,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모  
 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설의 창조자들은 실제의 나옹이 어땠다는 데  
 구애되지 않고 이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나옹”이 “어떤 사람”  
 으로 바뀔 수 없으며, “까치소”는 실제로 있는 지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  
 거물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새로

10) 鄭源鎰, 嶺南誌 42(大邱 1940) 寧海府 古蹟條에서 원자 번역.

운 의문에 부딪히도록 하는 구실을 한다.

## 2.

나옹대사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요 거 창수면에서, 창수면에서, 창수면에서 올라가면, 한 십리가 될게래. 불미골이라고 있어요. 불미등이라고. 여 함다반에 불미골, 불미골 이려는데. 거 살 때 나옹 모친. 우째 들으니 생은 아씨라 그래요. 어급니 아짜. 생은 아씨라 카는데. 우리는 들은 바 나옹을 낳았그당. 가장이 일찍 죽어뿌고. 나옹을 낳았는데. 나옹을 낳 때에 우였는게 아이라, 나옹이 부친은 일찌기 돌아가시고 없고, 나옹대사가 유복이 댜든 모양이지. 유복이 돼가주고 있는데. 거 불미골이라고 승악한 산계골에 사다 보이께네. 이전 구실 시대에 구실돈을 안 냈어요. 오새 말로 세금이지. 이리고 안 내이, 영해서 관환이 댜기면 말이여, 사람이 구실 받으로 댜긴다 이 말이여. 한 분 가, 두 분 가 안 되이. 인지는 구채없이 몬 받았이니, “그 구실돈을 받아오라, 잡아오라.” 그그당. “그 여자를 잡아오라” 이래그당. 이 그러이 그리 구실돈을 안 내니끼, 여자를 잡아가주, 지금 영해로 내려오는 판이라. 거 가치소라는 소가 있어요. 저 올라가면 가치소라는데, 지금 어데나 하면, 지서 옆에 거 가치소요. 가치소에, 거 부근에 신작로가 있었든지, 글때 지리란 건 모르고. 오다이 그 나옹 모친이라 말이여, 순산을 했단 말이여. 그래 순산을 하이 나옹을 그래 거기 낳단 말이라, 순산을 하니, 이 몸썰 사람들이 그 나옹을 거기다 거랑 가에다 내면지뿌고, 그 사람을 잡아가주 영해로 왔다 이 말이여.

영해로 오이 영해부사가, 글 때 어느 등내뎌등 모르지요 마는, 영해부사가 이래 널다보이, “나옹 어무이를 잡아 대령했입니다.” 이래이, 그 우에 이래 널바다보이, 영해부사가 널바다보이, 그 여자가 온 몸에 유희이 남자하단 말이여. 그래 “그 여자가 몸에 피가 왜 저래 있느냐?” 이래이, “아 글아이라, 자기 집에 가가주고 잡아가주고 오다가, 어느 강가에 오다가 순산을 했입니다.” 순산을 했는데. “순산을 했이면 근나저나 아는 어했단 말이로?” “아는 거그다 나두고 잡아왔입니다.” 하고 고만에 영해부사가 야단을 한다. “이놈, 죽일 놈들아!” 아무리 상부으 엄명이 급해도 말이여. 금방 자식을 놓은 사람을 데루오고, 피가 유희이 남자하고. 여 가매 대라.” 가매를 댜그당. 가매를 대가주고, 영해부사가 쌀하고 머 미역하고 구래가주 올라가는 판이라. 올라가다보이, “아는 어디가 내뎌렸노?” “여기 내뎌렸다.” 그래 가이까 말이라, 오리 머 날짐승이 말이여, 나옹을 나래울 덮고 이래 살렸어요. 살아, 아가 살았단 말이여. 살아가주고 그래 가매 속에다 여가주고, 그 나옹 사는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여. 가가주고 “그리 구호를 잘 하라고.” 이래가주 그래 나옹이 찼그명요.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여.

살았는데. 한 번은 있다가이, 나이 십세 미만에, 일고 여덟 살에 저내지 못했어요. 몬 하다보이, 어떤 중이 팔척 장신이 온다 말이여. 오는데. 그러이 어떤 중이

와가주고 “시주하라” 이라고. “시주하라” 이러니까 말이여, “이 고촌에 앉아서 살림은 군박하고, 먹기는 지금 때 분별을 묻하는 이 차지에 무신 시주할 게 있습니까?” 이래이, “아 시주할게 머가 있단 말이요?” 이래이께네, “위가 있을게라.” “여보 겨울 삼동에 무신 위가 있으?” 부자집도 겨울 삼동에 위를 구치 못할진대. 요새 걸으면 겨울에도 위가 있일는지 모르지. 그 때 시대야, 그 머림이 있나요. 위를. 이 나옹이 여닐곱살인가 여섯살인가 하는 말이 “어무이요. 저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위가 안죽 안 익었다 카소.” 이래그딩. 그래 아 썩기는 양으로 그래 그 대사가 달라그다이, “위는 있지요마는, 위가 안죽 덜 익었습니다.” “아하 그러시지요. 내가 아문 년, 아문 날, 소승이 오겠입니다.” 그러고만 가뿌리고, 어느 중인지 물렸그딩요. 물렸다가, 그 날 그 시에 딱 당하이께네, 그 중이 또 왔어요. 또 왔는데, 그래 “시주하십시오.” 이러이께네, 그 때 왔든 그 중인데. 나옹이 거 있다, 글 때 나이 열살이 넘었다. 열살이 넘었는데, 나옹이 하는 말이 “어무이요. 어무이는 나를 낳았고, 농기보다는 배워야 되고, 선생님이 와 있이이, 나는 선생님을 따라 갑니다.” 그래해서 출가했는데, 그래 그 나중에 보이, 보낸 뒤에 중이 지공대사라 그대요. 지공대산데. 그 말이 항다반에 유언이 있어요.

요기 올라가는, 올라가는데, 창수 지서가 있어요. 지서 뒤에 소냉기 있습니다. 소냉기 나옹이가 선생 밑에 따라갈 때 머 벌로 하나 집어가주 거다 숨아났어요. 숨어났는데. “그 술이 죽그딩 내 죽은 줄 알고, 그 술이 살그딩 내 산 줄 알아라.” 말해 왔어요. 그 나옹 선생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나, 그래서 안죽 그 술이 살아 있어요.<sup>11)</sup>

나옹이 태어났다는 곳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현지에 가서 들어보면, 나옹 전설은 이렇게 이어지기도 한다. 이 자료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나옹의 출생에 관한 삽화, 출가에 대한 삽화, 그리고 나옹이 남겼다는 소나무에 관한 삽화가 그 셋이다. 이 세 가지 삽화는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셋 다 말하는 경우에도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나옹이 남겼다는 소나무는 크게 자라 반송이 되어 있어서, 그 마을 이름이 “반송정”이기도 하다. 반송에 이야기가 미칠 때에는 세 번째 삽화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이다. 그 나무는 최근 몇 년 전에 죽었다고도 하면서 말이 많다.

세 가지 삽화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설의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설은 민담과 달라서 독립적인 삽화가 일정한 순서

11) 1977년 8월 14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별영 1동에서 윤경호(남, 82)가 필자에게 말한 자료.

없이 이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삽화의 독립성은 전설의 이야기하는 방식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삽화가 독자적인 유형을 이루기도 한다는 데서 더욱 주목된다. 유형은 일정한 줄거리나 구조를 지니고 전승되는 독립된 이야기이다. 주인공이나,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도 유형이 유지되는 것은 설화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널리 지적되고 있는 현상이다.

출생에 관한 삽화는 “영웅의 일생” 중에서도 민중적 영웅의 일생이다<sup>12)</sup>. 미친한 혈통을 타고난 인물인, 비정상적으로 잉태되거나 출생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녔으나, 어려서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구출·양육자를 만나서 살아났다. 행장에서의 나옹에서는 이러한 설정이 보이지 않지만, 전설에서의 나옹은 민중적 영웅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미친한 혈통은 이미 살핀 바이다.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은 우선 아버지가 도망가고 없었다든가 유복자로 태어났다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탁월한 능력은 미리 강조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알고 나중에 도승이 되었다는 데서 결과적으로 입증되었다.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가 살아난 것은 아주 강조되어 있으며, 날짐승의 보호를 받은 점은 朱蒙의 경우와 같다. 나옹 전설을 창조한 사람들은 나옹을 미친한 처지에서 태어나 죽을 고난을 겪은 민중적 영웅으로 의식하고, 나옹을 통해서 민중적 영웅적 공통적인 고민을 부각시키면서, 자기 자신들이 실제로 겪고 부딪히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잉태와 출생은 자료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옹선사의 어머니인 박씨가 11월 어느날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참외 하나가 냇가에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 그것을 주워 먹었다. 이것을 먹은 후 박씨부인은 잉태를 하게 되어 낳은 것이 바로 나옹선사이다<sup>13)</sup>

이것은 예사 비정상이 아니며, 나옹이 고난을 타고난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구실을 한다. 참외를 먹고 잉태를 했다는

12) 趙東一, “英雄의 一生, 그 文學史的 展開”, 東亞文化 10(서울: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東亞文化研究所, 1971)

13) 주(4)의 책 p. 123.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11월에 참외가 떴내려 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외를 먹고 잉태했던 인물이 나중에 도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옹이 아닌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찾을 수 있는 전승적인 유형이다. 중국에 가서 풍수지리설을 배워왔다고 하는 신라 말의 도승 道誥에 관한 전설이 다음과 같다.

신라 사람 최씨네 뜰에 길이가 한 자나 되는 외가 있어서, 온 집안이 자못 이상스럽게 여겼다. 최씨가 몰래 따서 먹었다. 그랬더니 아이를 배서 열 달이 차자 아들을 낳았다. 그 부모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를 수칠일 동안 대숲에 버려 두었다. 딸이 가보니, 비둘기와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덮고 있었다. 돌아와 부모에게 고하니, 부모가 이상스럽게 여겨 데리다 길렀다. 자라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이름을 道誥이라고 했다<sup>14)</sup>.

이 자료는 나옹의 경우에 아주 흡사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내다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정은 판이하다. 나옹의 경우에는 나옹의 어머니가 외를 먹고 나옹을 잉태했다고 하는 유형을 택한 자료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옹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나옹이 버림받은 이유는 오로지 어머니가 잡혀가는 도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잡혀가는 도중에 태어났다는 것이 나옹 전설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외를 먹고 잉태했다는 유형은 나옹의 출생을 말하는 대목에서 어쩌다가 들을 수 있는 이설 정도로 전해질 따름이다. 그 대신에, 위에서 길게 인용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유형이 나옹의 출가를 말하는 대목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뚜렷이 살아 있을 수 있다. 중이 와서 외를 시주하라고 할 때의 외는 나옹의 생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외가 익는 것이 나옹의 성장이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성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이가 드는 것도 성장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장은 정신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나옹은 배워야 한다면 서 중을 따라 나셨다.

나옹이 심은 소나무에 관한 삽화도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海印寺에 가면 崔致遠이 짚던 지팡이를 꽂아 둔 것이 거목이 되었다고 한다. 浮石寺에도 이러한 전설이 있다. 나옹의 경우에도 나무를 심었다고 하기도 하고,

14) 鶴山談藪 乾卷(嶺南大學校 圖書館 所藏)에서 필자 번역.

거꾸로 꽂아둔 지팡이가 반송으로 자라났다고도 한다<sup>15)</sup>. 어느 경우에도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다. 나옹은 가고 없으면서 자기 생명을 남겨 놓은 것이다.

이처럼 전설은 기존 유형에 따라서 창조된다. 기존 유형을 따르기 때문에 삽사리 전승되고, 유형으로 정립된 창조라야 납득할 수 있는 작품구조를 지닌다. 그래서 유형은 창조를 제약하지 않고 촉진하는 구실을 한다. 가난한 백성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살길이 막연하게 되었던 나옹은 중이 되어 고향을 떠나감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을 예사 말로 설명한다면 관심을 끌 수도 없고,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공통적인 유형을 나옹에 맞도록 찾아낸 다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하고 시비를 계속 벌임으로써 관심과 논란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 3.

나옹 전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개이고, 이러한 전개 때문에 논란이 벌어진다.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죽음(생명의 부정)

#### 생명(죽음의 부정)

- |                      |                             |
|----------------------|-----------------------------|
| (가) 나옹의 어머니가 홀로 살았다. | 외를 먹고 나옹을 잉태했다.             |
| (나) 어머니가 잡혀갔다.       | 잡혀가는 도중에 태어났다.              |
| 까치소에 버렸다.            | 날짐승의 보호로 살아났다.              |
| 가난해서 살기 어려웠다.        | 가난해도 잘 자랐다.                 |
| (다) 외가 익어가는 줄 모른다.   | 외가 익어가는 줄 안다.               |
| 머물러서는 살 길이 없다.       | 떠나가 중이 되면서 살 길을 찾았다.        |
| (라) 나옹은 가고 없다.       | 소나무가 남아 있다.                 |
| 지팡이를 거꾸로 꽂았다.        | 그것이 반송이 되도록 자라났다.           |
| 반송의 한쪽 가지가 죽었다.      | 아직 다 죽지는 않았다 <sup>16)</sup> |
| 반송이 다 죽었다.           | 아직 베지는 않았다.                 |

15) 1977년 8월 12일,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 2동 권이섬(남, 81)이 말한 자료

(가)에서의 죽음과 생명은 자연적인 것이다. 여자 혼자서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데, 혼자서도 생명을 창조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연적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에서의 죽음은 강요된 것이다. 세상이 잘못 되어서 가난하고 무력한 백성에게는 죽음이 강요된다. 강요되는 죽음에 시달리면서도 그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잡혀가는 도중에 태어나, 태어나자 버림받은 나옹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확인하게 된 과정을 강조해 왔다. 횡포한 관원은 나옹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만 사람이 아닌 날짐승은 나옹을 살려내었다는 것도 그 세상이 잘못 되었다는 데 대한 항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에서는 사정이 또 달라진다. 외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나옹의 어머니는 의식이 죽어 있다. 그렇게 산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확인하고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을 따라 나선 나옹은 새로운 생명을 찾은 것이다. 가난한 백성인 나옹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지만, 중이 되어서 고향을 떠난 나옹에게는 살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라)에서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진다. 가고 없다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는데, 소나무가 남아서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없어도 있고, 없으면서 있다. 지팡이를 거꾸로 꽂는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 없는데, 거꾸로 꽂은 지팡이가 반송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 나옹이 보여준 생명의 논리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반송의 한쪽 가지가 죽고, 마침내 다 죽는 때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나옹이 보여준 생명의 논리가 지니는 한계일 수 있다.

(가), (나), (다), (라)는 한 사람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라도 각기 그 중에 한두 가지씩 말하면서 논란을 벌인다. 이것이 전설의 현장이다. 나옹 전설의 현장에서는 죽음과 생명에 관한 토론이 계속 벌어져 있다.

16) 1977년 8월 11일~14,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서 자료를 조사할 때, 여러 사람이 그 나무 한쪽 가지가 죽었느니, 다 죽었느니 하면서 논란하는 것을 거듭 들었다.